

#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 Post-Divorce Adjustment: The Experience of the 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정 현 숙\*

Chung, Hyun Sook

### ABSTRACT

Based upon the ABC-X model and family systems theory, this study examined (1) problem-solving and behavioral strategies utilized by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and (2)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158 elementary school 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of divorced families in an urban area (56 male and 102 femal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age differences in problem-solving and behavioral strategies utilized by difficult family situations. Factors that are useful in predicting adjustment of divorced children are the following variables: sex, visitation frequency of noncustodial parent, quality of custodial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length of divorce. Implications for knowledge as well a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에 의하면, 1990년 부부들의 64%가 이혼당시 동거기간이 5년 이상이며, 사법연감(1991)도 1991년 현재 재판이혼의 경우 총 이혼한 사람 20,544명의 2,325명(11.3%)이 1명, 6,601(32.1%)이 2명, 7,718(37.5%)이 3명, 774명(3.8%)이 4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무자녀의 경우는 단지 2,325명(11.3%)임을 보고 하고 있어 대다수의 이혼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는 점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약 34,600명의 아동이 재판이혼과 관련되어 있으나, 전체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비율은 약 8:2로 합의이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해 볼때(이태

영, 1987), 비자발적으로 이혼에 포함되는 자녀의 수는 상당한 수입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수는 재판이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악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혼전·후의 아동과 청소년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 혹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들을 돕는 사회시설, 학교 차원의 지도방침등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 1985년의 센서스에 의하면, 1972년 이후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혼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혼한 여성중 51%가 1-2명이 자녀가 있으며, 17%가 3명의 자녀, 3%가 4-5명의

---

\* 연세대학교 강사

자녀가 있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혼과 별거가 아동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인 미국에서 조차 아동기에 경험하는 이혼의 경험은 이들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많은 연구자가 보고하고 있다. Cook(1982)에 의하면, 아동에게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위기감에 대한 연구에서 2-6, 9-12학년, 대학생들의 가장 큰 위기원(crisis causer)이 이혼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의 원인은 자녀들이 부모의 갈등에 노출됨으로 야기될 수 있는 긴장감이나,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서 오는 감정의 처리나, 생활의 변화를 극복해야 하는데서 야기될 수도 있으며 (Johnson, 1986),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책임감의 증가에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Weiss, 1979)

자녀문제에 대한 외국연구는 이혼에 대한 자녀들의 연령에 따른 효과와 이혼이후의 자녀들이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이혼의 두 고전적 연구인 Hetherington, Cox와 Cox (1976, 1978, 1982, 1985, 1989)와 Wallerstein과 Kelly(1974, 1975, 1976, 1977; Kelly & Wallerstein, 1975, 1976, 1977; Wallerstein & Blakeslee, 1989)의 연구와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이혼은 명백히 발달적으로 아동에게 학업성적의 하락(eg. Guidubaldi et al., 1986; Hetherington, 1979; Zill, 1983), 분노, 공격성, 후회, 억압, 죄의식의 감정 유발, 동료와 대인관계에서 문제(Hetherington, Cox, & Cox, 1982, 1985, 1989; Wallerstein & Kelly, 1980; Zill, 1983, 1988)뿐 아니라 자아개념, 인지능력, 대인관계, 비사회적 행동(Demo & Acock, 1988)등 커다란 위기감을 주는 사건임이 명백하다. 한부모와 이별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뿐아니라, 이혼자체가 다른 많은 변화를 함께 야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혼전의 가족내의 갈등의 양과 상관없이 이혼이 아동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긴장을 주는 사건임

에는 모든 연구들이 의견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후의 적응 문제에는 연구들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이혼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혼당시의 연령(Wallerstein et al., 1988), 성별(Hetherington, Stanley-Hogan & Anderson, 1989), 아동의 기질(Hetherington, 1989; Tschann et al., 1989), 별거 기간중의 부모훈육태도(Kelly, 1988),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의 정도(Hetherington et al., 1982; Hetherington, 1989), 이혼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의 재혼 여부(Bray, 1988; Kelly, 1988; Hetherington et al., 1985), 이혼후 비친권 부모와의 면접 정도와 친권 여부(Furstenberg, 1988; Kelly, 1988)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각 변인의 영향정도와 방향은 서로 상호작용효과가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나 부모의 훈육태도등 여러 변인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족구조, 가족의 개념, 사회적인식등 많은 부분이 미국과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적인 연구의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교문화가 팽배하고, 결혼이 선택이 아니라 발달의 단계로 받아들여지며, 결혼의 질보다는 결혼의 안정성이 더 중요시되는 우리나라에서 결혼후의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모의 이혼에 비자발적으로 포함되는 자녀들이 받게될 사회적 영향과 이들의 적응은 이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1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이혼후 재산 분할권, 면접교섭권, 자녀양육에 관한 신청권등이 부과됨으로써 이혼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이혼에서 자녀 양육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에게 부여되었다. 자녀

양육권에 대한 사회조사에 의한 최재석의 연구에 의하면 33.3%가 어머니가, 76.56%가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반대로 대부분 이혼에서 어머니가 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아버지의 부재가 아동의 여러 발달적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적절한 성유형 행동습득을 위해 같은 성을 가진 부모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사회학습이론, 발달적, 상징적 상호작용론, 인지이론가들의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하고 있다(Demo & Acock, 1991). 따라서 남자아이들이 적응상 여아보다 이혼후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때 우리실정에 맞는 이론적 틀과 자녀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변인의 파악이 이론적인 차원 뿐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자녀의 수나 아동의 연령, 친권의 소재등의 탐색적인 실태 파악과, 자녀들의 이혼에 따른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이혼에 대한 대책과, 아동의 적응을 위한 부모들의 역할등을 함께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혼의 문제를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2. 자녀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상황적변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모델과 측정변인

그림-1은 이혼 이후의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로서, Hill(1949)의 위기 후의 가족의 적응과정을 설명한 ABCX 모델과 가족체계

이론(Hall & Fagan, 1956)에 기초하였다. 아동의 발달과정에서의 위기적인 사건에 대한 적응과정은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즉, 그사건을 인지하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제해결방법, 개인의 발달적인 단계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그 아동이 속한 가족(특히 사회적 지지자원으로서 형제와 부모체계)과 사회의 다양한 지원(종교, 친구관계등)에 의해 영향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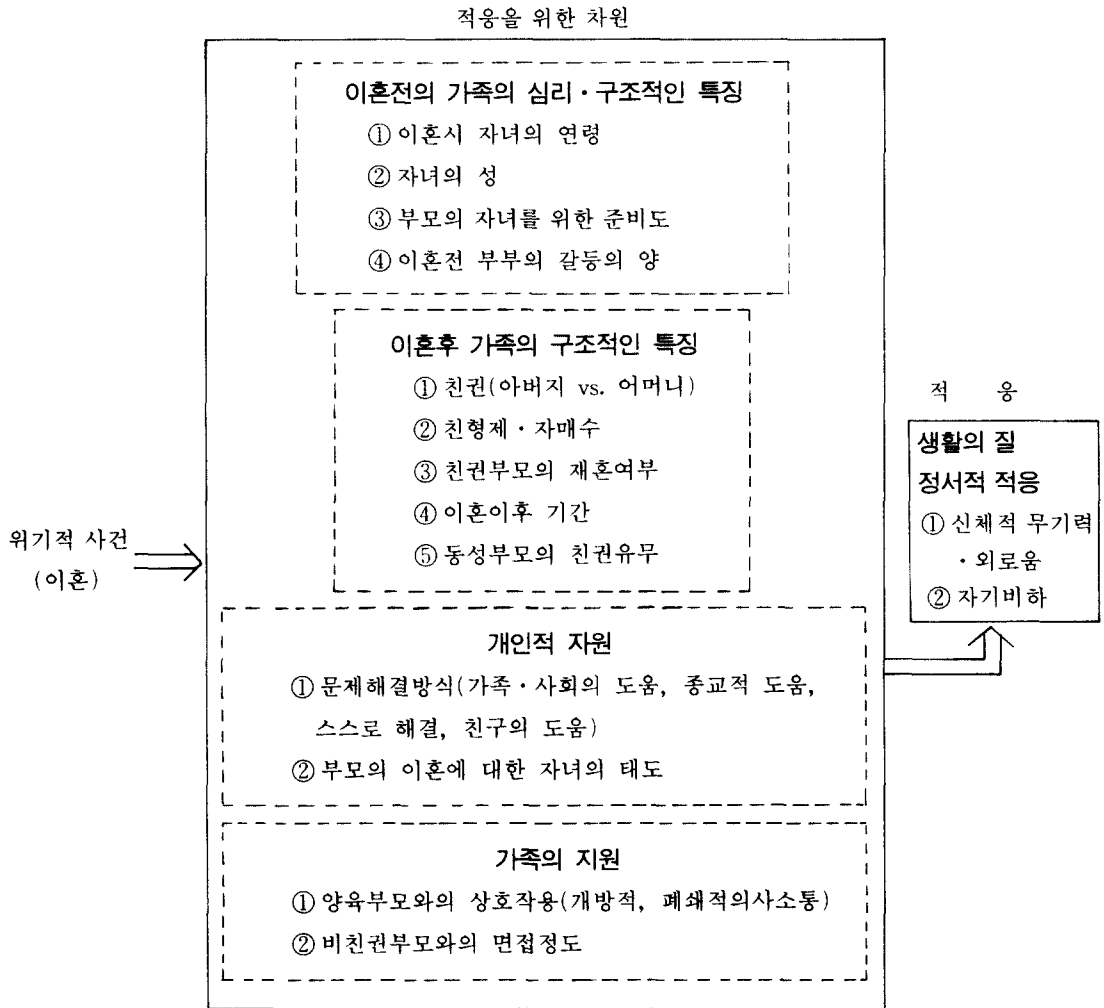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이혼전의 가족의 심리·구조적인 특징과 이혼이후 가족의 구조적인 특징, 아동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사회적지원으로서의 부모·사회의 지원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 독립변인군들은 누가적으로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연구에서는〈그림1〉과 같이 각 독립변인군별로 측정변인이 이용되었으며, 아동의 적응상태는 Kitson과 Raschke(1981)의 정의를 이용하였다. 즉, 적응은 여러 일상생활(즉, 학교, 가정, 이웃, 대인관계등)에서의 적절한 기능화와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의 상대적 안정성이다. 이러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적응을 한 영역만을 측정함으로써 야기되는 개념적인 제한점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예, Price & McKenry, 1988).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측면에서의 질적인 만족과 우울증척도를 적응의 두 하위 요인으로 개념화 하였으며, 생활의 질과 우울증척도의 두요인(신체적 무기력과 외로움, 자기비하)을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그림 1) 이혼후 자녀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혼전후의 구조 환경적 변인에 대한 이론적 모델\*

\* ①-⑤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각 독립변인군의 측정변인들임

중 국민학교4학년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민감한 연구주제에 대해 피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질문지에 답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질문지는 아동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징에 관한

질문과 이혼후 적응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용 질문지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측정도구는 전체문항중 안면타당도를 통해 기존의 요인을 유지하면서 문항을 줄여서 사용하였다. 아동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방식을 알아보기위해 McCubbin, Olson과 Larson(1982)의 F-COPE(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

30문항중 20문항을 사용하였다(표-2 참고). 요인 분석결과 가족·사회적도움(7문항), 종교적도움(4문항), 친구로부터의 도움(2문항), 스스로해결(3문항)의 4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요인의 신뢰도는  $\alpha = .75$ ,  $\alpha = .76$ ,  $\alpha = .80$ ,  $\alpha = .63$ 이다.

이혼이후 현재의 적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적응상태는 Olson과 Barnes(1982)의 생활에 대한 질(Quality of Life)의 25문항중 11문항으로, 정서적인 적응상태는 Kovacs(1985)의 아동의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Scale) 27문항중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생활의 질척도는 가족, 친구, 친척들과의 관계,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 현재 사는 주거지, 학교생활, 이웃, 가족과 자신의 건강에 대해 아주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의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높은 점수는 일반적인 생활의 질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요인분석결과 전체문항 모두 한요인에 포함되었으며, 요인의 신뢰도는  $\alpha = .85$ 이다. 아동의 우울척도는 높은 점수는 높은 우울의 정도를 나타낸다. 요인분석결과 신체적무기력 및 외로움(14문항), 자신에대한 비난(9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요인의 신뢰도는  $\alpha = .89$ ,  $\alpha = .82$ 이다. 우울증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이혼후 친권부모와 관계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지를 번안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와의 개방적·폐쇄적 의사소통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한 문항은 제외시켰으며, 개방적의사소통(8문항), 폐쇄적 의사소통(7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다. 높은 점수는 친권부모와 개방적 혹은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각요인의 신뢰도는  $\alpha = .92$ 와  $\alpha = .90$ 이다.

부모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Kurdek과 Berg(1987)의 질문지(Children'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Scale)의 36문항중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동료의 놀림과 거부, 아버지에 대한 비난, 유기에 대한 불안, 어머니에 대한 불만, 재결합에 대한 희망, 자신에 대한 비난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이혼이후 비현실적인 기대나 비난등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alpha = .60$ 이다.

이혼전 자녀들이 심리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혼시 자녀의 연령은 만연령을 이용하였으며, 부모의 자녀를 위한 준비도는 "부모님이 이혼하기전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셨습니까?"의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녀들의 친권소재는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친부모를 양육자로 하였다.

### 3.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1992년 5월-7월까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을 통한 편의표집, 연구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통한 눈덩이표집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 15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의 표집은 전적으로 비확률적 편의표집에 의존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등을 사용하였으며, 각 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인분석과 사각회전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점수는 종합점수(composite score)를 이용하였다. 각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의 내적합치도지수( $\alpha$ )를 산출하였다. 각독립변인군이 종속변인(이혼후의 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군을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설명력있는 모델을 찾기 위하여 각단계별로 T(=계수추정치/표준오차)값에 기초해 변인들을 제거하였으며, 각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n=158)\*

변 인		빈도(명)	비 율	평균	SD	범위
성	남자	56	35.4%			
	여자	102				
연령	국민학생	30	18.9%	14.3	3.06	10-26
	중학생	80	50.7%			
	고등학생	37	23.4%			
	대학생이상	11	7.0%			
동거부모	아버지	87	55.0%	「38명(43.7%) 재혼」		
	어머니	50	31.6%	「13명(26%) 재혼」		
	기타	21	13.4%			
친형제 자매 수	없다	34	21.7%	1.41	1.13	0-5
	1명	62	39.5%			
	2명	33	21.0%			
	3명 이상	28	17.8%			
이혼시 연령	1-5세	28	22.0%	9.54	4.44	1-19
	6-10세	44	34.0%			
	11-15세	43	34.0%			
	16세 이상	12	10.0%			
비친권부모 와의 면접정도	전혀 만나지 않음	64	43.8%			
	일년에 1-2번	36	24.7%			
	일주일에 1-2번	28	19.2%			
	일주일에 3회 이상	18	12.3%			
종교	없다	61	39.1%			
	불교	24	15.4%			
	기독교	53	34.0%			
	가톨릭	14	9.0%			
	기타	4	2.6%			
부모의 학력		아버지		어머니		
	무학	0	0.0%	1	0.7%	
	국민학교졸업	10	6.7%	15	10.6%	
	중학교졸업	26	17.4%	34	24.1%	
	고등학교졸업	58	38.9%	62	44.0%	
	전문대학졸업	10	6.7%	8	5.7%	
	대학졸업	38	25.5%	21	14.9%	
	대학원이상	7	4.7%	0	0.0%	

\* 무응답의 빈도에 따라 전체사례수는 변인마다 차이가 있음.

단계에서의 R<sup>2</sup>의 증가량(각 독립변인군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특한 기여량)은 F검증(Cohen & Cohen, 1983)하였다. 위계적회귀분석에서의 순서는 시간적 특성에 따른 순서에 기초하여 이혼전의 구조적변인을 1차로, 이혼후의 구조적특징, 개인의 자원, 부모의 자원의 순서로 입력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 가정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은 표-1과 같다. 대상아동은 총 158명으로 여아가 64%이며,

전체연령분포는 국민학생 18.9%, 중학생 50.7%, 고등학생 23.4%이다. 이들의 동거 형태는 아버지와 동거가 55%, 어머니와 동거가 31.6%이다. 이들의 이혼시 연령은 10세 이하가 전체의 56%이며, 전체 대상의 43.8%가 이혼후 비친권부모와 전혀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시 자녀의 수는 친형제·자매의 수로 유추해 보면 78.3%가 자녀가 2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동거형태의 경우 최재석(1981)의 연구(부와동거 55.95%, 모와 동거 33.73%)와 거의 일치하여, 동거형태는 10년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

〈표 2〉 문제해결방식의 요인분석 (n=156)

문항	I	II	III	IV	h <sup>2</sup>
친척으로부터 도움받음	.68	.04	-.01	-.05	.31
친척들과 상의함	.60	.07	.07	.07	.38
전문가의 상담, 도움	.58	.07	.07	.07	.35
학교교사/상담교사의 도움	.52	.05	-.08	.03	.33
이웃으로부터 협조와 도움	.49	.06	.09	-.02	.25
지역사회기관의 도움	.45	.05	.08	.03	.21
비슷한 경험한 가족의 도움	.42	-.01	.28	-.02	.26
예배나 미사참여	.07	.84	-.01	.08	.71
교회활동참가	.15	.76	.04	.05	.60
신에게 기도	.01	.55	.04	.06	.46
성직자에게 도움	.36	.51	-.01	-.01	.46
친구에게 도움/협조	.17	-.04	.79	-.05	.60
친한 친구와 상의	.06	.09	.76	-.09	.65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01	.06	.06	.64	.42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05	.17	-.02	.59	.39
문제를 직면한다.	.01	-.08	-.14	.43	.21
Eigen 값	3.14	1.69	1.23	1.08	
설명변량	.43	.23	.17	.15	
누가변량	.43	.66	.83	.97	

을 경험하는 아동의 연령과 이들 부모의 학력은 각 연령층에, 또한 학력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녀들의 문제해결 방식

아동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방식을 알아 보기 위해 F-COPE 20문항에 대한 주요인분석에 의한 SCREE검사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4문항은 제외 시켰다. 사각회적(Promax rotation)결과 요인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0-.02), 다시 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표-2에서와 같이 가족·사회적도움(요인Ⅰ : 7문항), 종교적도움(요인Ⅱ : 4문항), 친구로부터의 도움(요인Ⅲ : 2문

항), 스스로 해결(요인Ⅳ : 3문항)의 4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네요인이 전체변량의 97%를 설명한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문제해결방식의 차이를 보기 위한 이원변량분석의 결과와 각 요인들의 평균값은 표-3과 같다. 즉, 국민학생들이 다른 집단보다 이혼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족·사회적도움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F=3.97, p<.05), 국민학생 집단이 중고등학생들보다 종교적인 도움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52, p<.05). 그러나 친구의 도움이나,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에서는 연령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연령에 따른 문제해결방식의 변량분석 결과와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가족 사회적도움	친구의 도움	종교적인 도움	스스로 해결
국민학생	16	17.13(5.66) A	4.63(2.16)	12.06(3.59) A	10.25(3.00)
중학생	79	11.81(4.04) B	5.22(2.34)	8.33(4.15) B	10.18(2.43)
고등학생	37	11.81(4.00) B	5.46(2.27)	8.02(4.15) B	11.16(2.02)
대학이상	11	10.73(3.25) B	6.91(1.92)	7.73(3.77)	11.18(2.44)

- \*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으며, 같은 문자간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음
- \* 괄호안은 표준편차

각집단별로 여러가지 문제해결방식의 상대적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의 종합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은 〈그림2〉와 같으며, 집단내의 상대적이용의 Paired T-test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림2〉와 〈표 4〉에 의하면 네집단 모두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해결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국민학생을 제외하고 가족이나 사회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학생을 제외하고, 중학생이상 집단은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학생 집단은 종교적인 도움보다 친구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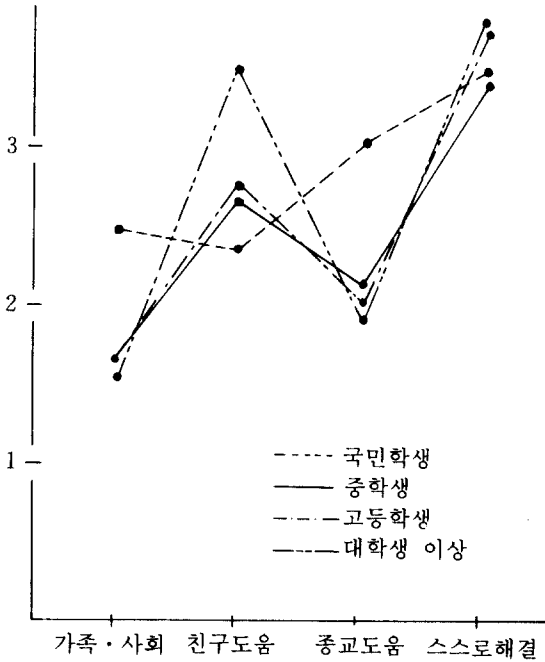
움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학생은 종교적 도움을 많이 이용하며, 가족·사회적 도움

〈표 4〉 집단별 문제해결방식의 Paired T-test 결과\*

	가족·사회	친구도움	종교도움	스스로해결
국민학생	3	4	2	1
중학생	4	2	3	1
고등학생	4	2	2	1
대학생 이상	4	2	2	1

- \* 번호는 순위이며 같은 번호간에는 차이가 없음





〈그림 2〉 집단별 문제해결방식

을 친구들을 통한 도움보다 높게 사용하여 발달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계수와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5〉와 같다. 각 독립변인군의 세 종속변인(적응), 즉, 생활의 질과 우울증척도의 두요인(신체적 무기력과 외로움, 자기비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군을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 〈표 7〉, 〈표 8〉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네 독립변인군중 이혼후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들은 부모의 지원군으로, 세 독립변인군군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35%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R^2=.352$ ). 구체적으로 각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4에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현재의 생활의 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혼시 연령이 어

〈표 5〉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n=14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성(남=1)	1.00												
2. 종교도움	-.03	1.00											
3. 이혼에 대한 태도	.14	-.01	1.00										
4. 개방적 대화	.01	.25	-.01	1.00									
5. 폐쇄적 대화	.00	-.11	.09	-.32	1.00								
6. 이혼후 기간	.01	-.01	-.12	.06	-.00	1.00							
7. 이혼시 연령	-.20	-.10	-.05	-.16	.06	-.73	1.00						
8. 스스로 해결	.07	.09	-.04	.13	-.05	.07	.00	1.00					
9. 접촉빈도	.06	.14	.05	-.12	-.04	-.20	.17	-.02	1.00				
10. 가족·친구 도움	-.08	.08	-.16	.14	.04	.05	.13	-.09	.12	1.00			
11. 생활의 질	.16	.19	-.23	.51	-.34	.16	-.27	.11	-.07	-.12	1.00		
12. 신체적 무기력	-.12	.06	.35	-.36	.34	-.16	.17	-.15	.03	.00	-.57	1.00	
13. 자기비난	.02	.15	.27	-.28	.26	-.09	-.08	-.29	-.06	-.07	-.27	.68	1.00
평균	0.36	8.56	5.46	25.4	19.3	6.66	9.64	10.5	2.08	5.29	35.4	9.01	6.51
표준편차	0.47	4.18	2.80	7.76	5.24	4.04	3.97	2.45	1.24	2.34	7.51	5.50	3.71

릴수록, 친구의 도움을 덜 요청 할 수록, 부모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수록, 양육부모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생활의 질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이혼후 더 잘 적응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양육부모와의 개방적 대화( $\beta = .46$ )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모델2에서 의미있

게 나타난 친권의 소재나 양육부모의 재혼여부등의 효과는, 개인적자원과 부모의 자원을 통제한 경우 그 효과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현재의 생활의 질로써 평가한 아동의 이혼후의 적응에는 아동이 가진 개인적 문제해결능력이나 친권부모로부터의 지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표 6〉 이혼후 자녀의 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종속변인—생활의 질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이혼전 구조적특징		이혼후 구조적특징		개인·사회적 자원		부모의 지원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성(남=1)	1.64	.10	2.26	.14	2.97	.19	2.35	.15*
이혼시 연령	-.48	-.25***	-.45	-.24**	-.38	-.21**	-.26	-.14*
재혼여부(재혼=1)			2.58	.16*	2.30	.14	1.40	.09
동성부모양육(동성=1)			-2.10	-.14	-.2.21	-.15	-1.48	-.10
부의 양육			1.88	.12	1.48	.10	2.76	.18
모의 양육			3.69	.23*	2.50	.15	1.66	.10
가족·사회적 도움					.12	.07	.15	.09
친구의 도움					-.48	-.15*	-.60	-.19**
종교적 도움					.32	.18*	.11	.06
이혼에 대한 태도					-.76	-.28***	-.76	-.28***
개방적 대화							.45	.46***
폐쇄적 대화							-.14	.10
intercept	39.46		36.96		39.28		31.46	
R <sup>2</sup>	.086***		.140**		.263**		.475**	
R <sup>2</sup> 증가량			.054		.123**		.352**	

\* p<.5    \*\* p<.01    \*\*\* p<.001

〈표 7〉에 의하면, 개인적자원인 문제해결방식등의 변인들이 구조적변인의 변량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약 12%의 변량을, 부모의 지원이 그외의 14%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우울증의 한척도로서의 신체적 무기력과 외로움은 여아에게 높게 나타나며, 종교적인 도움을 많이 나타낼수

록, 이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양육부모와 개방적 대화가 적고, 부정적 대화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들 변인중 양육 부모와 개방적 대화( $\beta = -.34$ )와 이혼에 대한 태도( $\beta = .33$ )가 아동의 신체적 무기력과 외로움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모델 1, 2 에서 구조적자원으로

서의 형제자매수와 이혼전 부모의 이혼에 대한 준비도의 태도 변인은 개인적 자원을 통제했을때, 또한 모델3에서 이혼시 연령의 효과는 부모의 자원을 통제한 경우 그 효과가 사라진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혼에 대한 태도나 양육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8〉에 의하면, 우울증의 한 척도로서, 자신에

〈표 7〉 이혼후 자녀의 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종속변인-신체적 무기력 및 외로움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이혼전 구조적특징		이혼후 구조적특징		개인·사회적 자원		부모의 지원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이혼시 연령	.16	.11	.18	.13	.34	.25*	.17	.13
성(남=1)	-1.06	-.09	-2.01	-.18*	-2.22	-.19*	-2.04	-.18*
이혼전 부모태도	1.13	.18*	1.27	.20**	.97	.14	.09	.01
형제 자매수			-1.01	-.21**	-.73	-.15	-.60	-.12
이혼후기간			-.04	-.03	-.15	.10	-.02	-.02
동성부모양육(동성=1)			1.41	.13	1.98	.15	1.28	.11
모의 양육			-1.90	-.16	-1.44	-.07	-.02	-.00
친구의 도움					.02	.15*	.04	.03
종교적 도움					.15	.11	.23	.17*
스스로 해결					-.31	-.13	-.16	-.06
이혼에대한 태도					.66	.33***	.66	.33***
개방적 대화							-.24	-.34***
폐쇄적 대화							.18	.17*
intercept		6.76		8.33		3.18		6.27
R <sup>2</sup>		.068*		.133**		.252**		.388**
R <sup>2</sup> 증가량				.065*		.119**		.136**

\* p<.5    \*\* p<.01    \*\*\* p<.001

대한 자존감이 낮은 자기비하는 개인적 자원이 구조적변인이 설명한 변량외에 16%를 더 설명하며, 부모의 지원은 추가로 약 12%의 변량을 더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부모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기대나 태도와 문제해결방식, 부모와의 관계 변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모델 4에 의하면, 이혼시 연령이 어릴수록, 이혼이후 기간이 짧을수록 자기비하점수가 높다. 또한 종교적인 도움을 많이 청할수록,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낮을수록, 이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비친권부모와의 접촉이 적을

수록 우울증 점수가 높다. 구조적변인들의 효과는 부모의 자원을 통제후 그 효과가 사라지므로, 이혼후 자녀들의 적응은 친권부모와의 관계와 다

른 종속변인과는 달리 비친권부모와의 접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6> <표 7> <표 8>에 의해 각 독립변인들의 세

<표 8> 이혼후 자녀의 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종속변인—자신에 대한 비난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이혼전 구조적특징		이혼후 구조적특징		개인·사회적 자원		부모의 지원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이혼시 연령	-.11	-.12	-.22	-.24*	-.13	-.14*	-.24	-.27*
이혼전 부모태도	.70	.16*	.75	.18*	.68	.16*	.06	.01
형제 자매수			-.52	-.16*	-.55	-.17*	-.32	-.10
이혼후기간			-.21	-.23*	-.11	-.13	-.21	-.25*
동성부모양육(동성=1)			.57	.08	.78	.10	.44	.06
모의 양육			-1.38	.17*	-1.12	-.14	-.08	-.01
가족·사회적 도움					.02	.02	.07	.08
종교적 도움					.16	.18*	.21	.23**
스스로 해결					-.43	-.28***	-.35	-.22**
이혼에대한 태도					.21	.15	.23	.17*
개방적 대화							-.17	-.36***
폐쇄적 대화							.07	.09
비친권부모와 면접정도							-.52	-.18*
intercept	6.88		10.23		10.43		14.47	
R <sup>2</sup>	.03***		.122**		.251**		.367**	
R <sup>2</sup> 증가량			.091**		.160**		.116**	

\* p<.5    \*\* p<.01    \*\*\* p<.001

종속변인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이혼시 연령(표 6, b=-.26)과 양육부모와의 개방적인 대화(표 6, b=-.76), 이혼에 대한 태도(b=.45)는 다른 독립변인에 대한 영향력보다, 현재의 생활의 질에 영향력이 더 크다. 또한 폐쇄적인 대화(표 7, b=.18)는 다른 종속변인들보다, 신체적 무기력 및 외로움에 더 중요하게 기여한다.

## V. 토 의

본 연구는 표집의 대표성과 표집수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의 과정을 횡단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 함으로써 이혼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많은 변인들의 통제와, 특히 이혼후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이혼후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아동

(21명)의 경우, 조부모와 동거, 친척들과 동거, 혼자 자취, 기숙사, 친구와 동거등 동거형태의 다양성으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혼후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탐색적 연구로서 우선 이혼후 자녀들의 문제해결방식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토대로 이혼에 대한 대책과 아동의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 부모, 사회에서의 적절한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한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 158명중 55%가 아버지와, 31.6%가 어머니와, 13.4%가 부모 이외의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 이혼시 연령은 각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39.5%가 1명, 21%가 2명, 17.8%가 3명 이상의 친형제·자매가 있다. 또한 이들은 이혼후 비친권부모와는 43.8%가 전혀 만나지 않았으며, 24.7%가 1년에 1-2번, 31.5%가 1주일에 1번이상 만나고 있다. 이혼한 부모의 학력도 각 단계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2. 이혼과 같은 위기적상황에서 자녀들은 가족·사회적도움, 친구의 도움, 종교적인 도움, 스스로 해결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책략중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가족·사회의 도움을 가장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학생이 다른집단보다 가족사회적 도움과 종교적 도움을 많이 이용한다.

3. 자녀들의 현재의 적응을 자녀들 자신의 현재 생활상태에 대한 만족정도와 정서적인 적응으로 개념정의 할 때 이혼후의 자녀들은 1)이혼이후 기간이 길수록, 2)스스로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많이 이용할수록, 3)양육부모의 재혼여부나 성에 관계없이 친권부모와 긍정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

작용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적을수록, 4)비친권부모와 접촉을 많이 할수록 이혼후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방적 대화, 즉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양육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자녀들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폐쇄적인 대화는 정서적인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의미를 갖는 몇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7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전체인구중 이혼한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결과 이혼이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들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적응을 위해서 사용하는 문제해결방식은 모든 연령층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증 척도에 대해 질문지에 응답한 응답자(여, 중3)의 자발적인 소감에 의하면 “물론 가정환경에 의해 쉽게 좌절하고 비행하는 청소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쉽게 적응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그러나 이 설문지는 지나칠 만큼 이혼부부의 자녀를 정상아들과 격리시키고 있다...”고 연구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도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에 대한 반발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자료수집을 위한 학교와의 협조과정에서 많은 학교에서 주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져가는 가족(Families : 예를 들면, 이혼가정, 재혼가족, 분거가족, 편부모가족등)에 대해 이들의 복지를 위해,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가 요구되며,

정책적자원에서도 다양한 가족이 일반가족(intact family)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치와 이해가 요구된다.

둘째, Wallerstein과 Kelly(1976)의 연구에 의하면, 학령전기 아동이나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의 이혼에 대해 이들의 인지능력의 발달적 특징에 의하여 자신들의 잘못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의 한 척도인 자기비난은 이혼시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이러한 경향도 이들의 인지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모들은 이혼시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이혼의 원인 및 내용, 앞으로 일어날 생활의 변화등 전반에 대한 솔직한 자녀교육이 필요하며, 가정법률상담소등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부모들의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혼에 대한 법적인 대처방법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녀들을 준비 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반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자녀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수 있는 주요변인들은 가족의 구조적인 특징보다는 자녀들의 현재 친권, 혹은 비친권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전의 부모의 역할 뿐 아니라 이혼후 친권, 비친권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의 경우 약 44%의 자녀들이 비친권부모와 이혼후 전혀 만나고 있지 않으나, 자녀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비친권부모와의 면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1년 새가족법에 포함된 면접교섭권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법집행자들 뿐 아니라 친권부모측에서의 이해도 요구된다.

네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

과에 의하면, 많은 가족구조적인 특성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개인·사회적인 변인이나 부모와의 관계변인을 통제 했을때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이 조건의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건의 통제는 이론화 과정에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자료분석방법에서도 지나친 변량분석에 의존한 결론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념화의 단계에서 비판없이 외국의 준거틀을 우리의 연구의 틀로 이용하는데 한계점을 보여주는 예를 본 연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남자들이 부모들의 친권유무에 상관없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미국연구에서 주장된 동성부모가 친권을 가질 때 자녀들이 더 잘 적응한다는 동성부모가설(Furstenberg, 1988; Kelly, 1988)은 기각되었다. 이는 이 가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족체계, 아동의 사회화 과정, 남아선호사상등에 적합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혼과정에서의 다양한 상황적 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표집의 독특한 특징일 수도 있어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이혼은 하나의 고정된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후 나타나는 자녀들의 정서적, 사회적증상과 행동특징에 대한 연구과 적용해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과정에 따라 자녀들을 추적 연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사회적 통념상 표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사들을 통해 가족의 학생들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이혼한 사실을 알게되는 경로, 이혼가족 아동들의 외형적인 증상이나 문제의 내용, 빈도, 강도에 관한 질문과, 이들의

적응과 정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 이혼가족을 위한 학교, 교사차원의 지도방안의 유무와 교사의 관심도와 요구도를 중심으로 면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교사들은 이들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현재의 학교제도에서 이혼한 가정의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교사들이 1년 단위로 바뀔에 따라 적응과정을 알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경우(예를 들면, 이혼후 전학을 가거나, 특별히 교사와 친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를 제외하고는, 담임교사 조차도 이혼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도지침이 없어 이들의 지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현재의 생활의 질, 외로움등의 우울증 척도의 효과가 이혼의 직접적 원인인지 단지 현재의 다른 문제 상황에 대한 결과인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혼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연구비투자를 통한 종단적연구가 절실하다고 본다. 그 시도로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이혼신고서 양식(즉, 친권자,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면접권 여부, 양육비 부담등의 내용 첨가)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이태영. (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최재석. (1981). 한국가족의 해체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위탁연구과제.
- Barns, H., & Olson, D.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Bray, J. (1988). Joint custody arrangements in the post-divorce family. Journal of Divorce, 13, 189-205.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
- Demo, D., & Acock, A. (1988).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19-645.
- Furstenberg, F. (1988). Child care after divorce and remarriage. In E. Hetherington & J. Arasteh(Eds.), Impact of divorce, single-parenting and stepparenting on children(pp. 325-368). Hillsdale, NJ: Erlbaum.
- Guidubaldi, J., Cleminshaw, H., Perry, J., Nasasi, B., & Lightel, J. (1986). The role of selected family environment factors in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Family Relations, 35, 141-151.
- Hetherington, E., Cox, M., & Cox, R. (1976). Divorced fathers. Psychology Today, 10, 42-46.
- Hetherington, M., Stanley-Hogan, M. & Anderson, E. (1989). Marital transition: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Johnson, J. (1986). Life event as stress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Beverly Hills: Sage.
- Kelly, J. (1988). Long-term adjustment in children of divorce: Converging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119-140.
- Kitson, G., & Raschke, H. (1981). Divorce research: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 Journal of Divorce, 6, 1-38.
- Kovacs, M. (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5-998.
- Kurdek, L., & Berg, B. (1987). Children'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712-718.
- Martin, T., & Bumpass, L. (1989). Recent trends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 37-51.
- McCubbin, H., Larsen, A., & Olson, D. (1981). F-COPE: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Olson, D., & Barnes, H. (1982). Quality of life.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Price, S., & McKenry, P. (1988). Divorce. Beverly Hills: Sage.
- Wallerstein, J., & Kelly, J. (1980). Surviving the breakup. NY: Basic Books.
- Wallerstein, J., & Blakeslee, S. (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Y: Ticknor & Fields.
- Weiss, R. (1979). Growing up a little faster: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in a single-parent househo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 97-111.
- Zill, N. (1988). Behavior, achievement, and health problems among children in stepfamilies. In E. Hetherington & J. Arasteh(Eds.), Impact of divorce, single-parenting and step-parenting on children(pp. 325-368). Hillsdale, NJ: Erlbaum.



부록 1 : 우울증척도의 요인분석결과-주요인분석, 사각회전(Promax), n=142

문 항		I	II	h <sup>2</sup>
16	나는 항상 혼자라고 느낀다.	.71	-.16	.38
4	요즘은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다.	.70	.07	.55
1	나는 항상 슬프다.	.69	-.21	.34
17	나는 학교가 재미없다.	.66	-.06	.40
6	나는 내가 싫다.	.59	.14	.47
9	나는 모든것이 짜증스럽다.	.58	-.03	.45
10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것이 싫다.	.54	-.03	.42
21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53	.16	.54
8	나는 나를 죽이고 싶도록 싫다.	.52	.28	.20
15	나는 거의 먹고싶지가 않다.	.47	-.05	.28
14	나는 항상 피곤하다.	.45	.12	.34
18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40	.24	.38
2	나에게는 잘되는 일이 별로 없다.	.38	.30	.17
13	나는 매일 쉽게 잠들수가 없다.	.32	.13	.28
23	나는 친구들과 자주 싸운다.	-.22	.64	.31
7	모든 나쁜일은 나때문에 생긴것이다.	-.08	.60	.35
22	나는 어른들이 하라는대로 잘하지 못한다.	.02	.58	.57
3	나는 무엇이던지 잘 못한다.	.27	.56	.49
20	나는 결코 다른아이들 처럼 잘 할수 없다.	.23	.53	.22
12	나는 학교공부를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수 있다.	-.11	.53	.37
5	뭔가 나쁜일이 나에게 생길것이 확실하다.	.22	.46	.27
11	나는 어떤일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12	.44	.35
19	나는 예전에는 잘하던 것들도 요즘은 잘하지 못한다.	.24	.41	
Eigenvalue		7.34	1.08	
누가변량		.71	.82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 I (신체적 무기력과 외로움)		1.00		
요인 II (자신에 대한 비난)		.63	1.00	